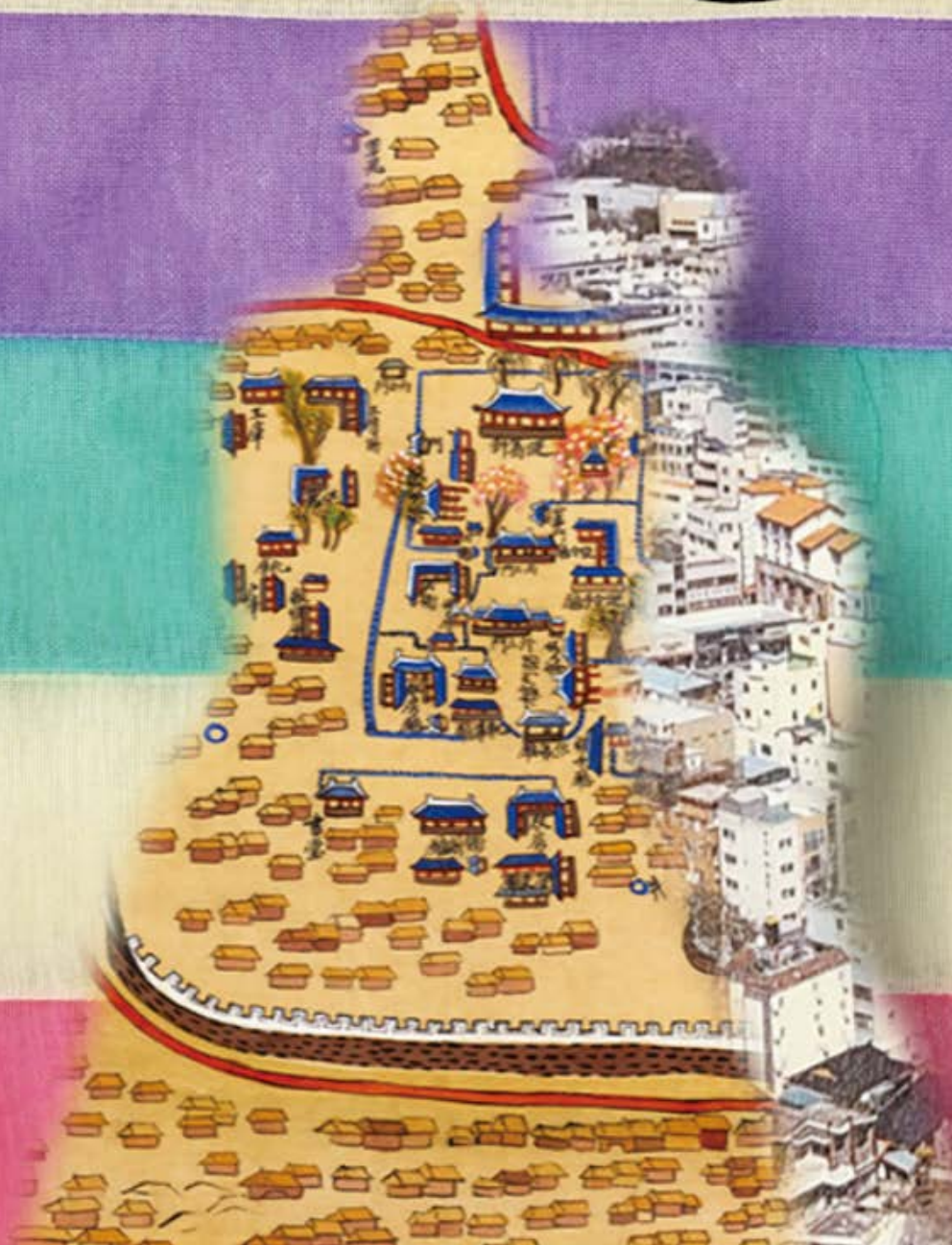


남문 주변길을 거닐다



1.머릿글 ----- 5**2.동네이야기(동네의 유래) ----- 7**

1. 남주동 ----- 8

2. 서문동 ----- 14

3.주민이야기 ----- 19

오랜 시간 동네와 함께한 주민들

1.조성국 ----- 20

2.김은태 ----- 23

3.김기일 ----- 26

4.김동현 ----- 32

5.조웅환 ----- 35

6.유원형 ----- 38

한복거리 주민들

7.김문정 ----- 43

8.김진숙 ----- 46

9.이옥자, 박명희 ----- 50

4. 우리가 살아가는 성안동 ----- 57

남문
후관길을
거닐다

머릿글

성안동에서 남문터 주변은 많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앙초등학교 27회 졸업생이거든요.
제 기억 속에 이 동네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리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제일 큰 변화를 찾자면 아쉽게도 유동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된 상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중앙공원만 보더라도 가족 공원에서
노인 공원으로의 변화를 크게 느낄 수 있어요.
어려서는 남주동, 모충동, 대성동, 남문로 등
아이들의 놀이터였어요.
큰 나무 밑에는 전문 사진사들이 포진해 자기만의
고객을 기다렸고 저도 아들 돌사진을 공원에서 찍은 기억이 나네요.
보광당(구 남문약국)앞 골목이 제가 어릴 적 살던 곳인데
지금도 그대로예요.

제기 차고 딱지치고 구슬치고 술래잡기하고 땅따먹기하고
자전거 연습하고 그땐 정말 큰 골목이었어요.
지금 보면 정말 여기서 그 많은 것을 했다고 믿기지가 않아요.

과거의 기억이 없어지는 것이 아쉬운 차에
동네기록관을 만들며 잊혀진 기억을 소환해 기록으로 남기며
보존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과거 이 거리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영광을 재현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이 소멸해 가는 골목의 재미를 살려
남주, 남문, 더 크게는 성안길 도시재생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아름다운 우리 동네와 그보다 더 빛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재밌게 들어주세요.

박종명 이력 - 성안동 주민 자치위원회 감사
- 성안길상점가상인회 부회장
- 로데오 번영회장
- 지역문화재생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남문
후관길을
거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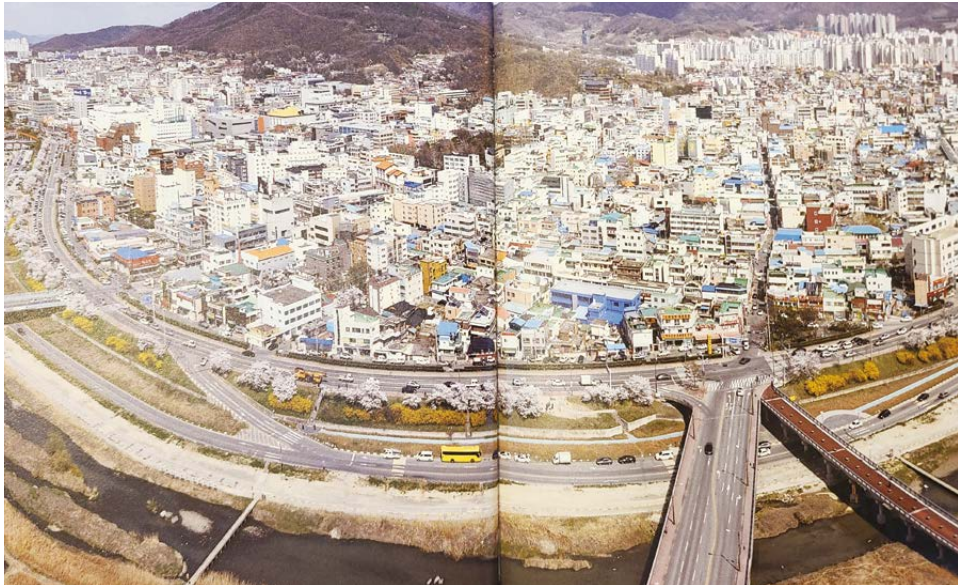
동네 이야기

동네의 유래





남주동



〈남주동과 서문동의 전경〉

[명칭유래]

원래 이곳이 남주내면 지역이었으므로, 그 이름을 계승한 것이다.

[형성]

본래 청주군 남주내면(南州內面)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보십리(甫十里)·천변리(川邊里)·장대(場垔) 각 일부를 병합하여 남정(南町), 보십리의 일부를 갈라서 대흑정(大黑町), 서림리(西林里)와 장대의 각 일부와 북주내면(北州內面)의 서리(西里) 일부를 병합하여 상생정(相生町), 서림리와 장대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신장대(新場垔), 보십리, 서림리, 장대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시장정(市場町), 서림리 일부를 갈라서 옥정3정목(旭町三丁目), 웅성리(瓮城里), 천변리, 석교리(石橋里) 각 일부를 병합하여 청수정(淸水町)이라 하여 신설된 청주면에 편입되었다.



〈1960년대 청주 남주동 약전 골목 모습〉

제공자기관 사진으로 본 움직이는청주, 책이름 출처사진으로 본 움직이는청주



〈남주동 육거리시장 안의 가구점 골목의 옛 이름으로, 약전골목의 모습〉 제작자. 개인 유현덕 출처. 유현덕

□ 약전골목

'약전'은 현재의 남주동 가구점골목을 가리킨다. '약전'은 약을 파는 가게' 라는 뜻이다.

이 골목에는 한약방이 많았고, 특히 청주 장이 서는 2일과 7일에는 한약재 매매가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약전'이라는 명칭은 이로써 생겨난 것이며, '약전'이 특별히 골목 안에 형성되자 '약전골목'이라 한 것이다. 현재 '약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동한약방'과 '청원한약방' 두 곳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은 '약전' 대신 '가구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어 '가구점골목'이라 부른다.

[변천]

1989년 5월 1일 동부(東部)출장소 관할이 되었다가, 1995년 1월 1일 상당구 관할이 되었다.

1998년 2월 1일에 성안동으로 통합되었으며, 2000년 12월 14일 남주동(南洲洞) 일부가 석교동에 편입되었다. [자연환경] 북동쪽에 있는 우암산(牛岩山)[338m]에서 서남쪽의 무심천(無心川)으로 점점 낮아지는 지역으로, 대부분 무심천변에 형성된 범람원 지역이다. 과거에는 논이었으나 지금은 시장과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다.



〈1960년대 남주동 우시장 모습〉 제작자. 개인 이보은 출처. 이보은

□ 쇠전 / 소전 / 우시장

'쇠전'은 서문동과 남주동에 걸쳐 있던 소 시장이다. 무심천 독 아래 하천변에 있었다.

'소전', '우시장'이라고도 불렸다. 이들 '쇠전', '소전', '우시장'은 소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주동에 있던 '쇠전'은 영운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모충동을 거쳐 운천동으로 이전하였다.

[현황]

시 중심부의 서남쪽에 있는 법정동으로 부채꼴이며, 총 면적은 0.14km²이다. 2011년 3월 31일 현재 690세대 1,42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남자가 741명이고 여자는 681명이다. 과거에도 이곳은 시장이었고, 지금도 동의 대부분은 재래시장인 남주시장이며, 단독주택이 혼재되어 있다. 주요 지명으로는 가구점골목, 나무전, 남정(南町), 닭전거리, 대흑정, 떡전, 상생정, 신장대(새장터), 쇠전(소전, 우시장 - 영운동, 모충동을 거쳐 현재 운천동에 있음.), 싸전, 약전(골목), 어물전, 시장정(장터 - 싸전, 자리전, 두태전, 피전 등이 있던 곳), 채소전, 피전(피천거리) 등이 있다.



〈1964년 남주동시장 모습〉 제공자: 기관 청주시 출처: 청주시

□ 장터 / 시장정(市場町)

‘장터’는 청주읍 남주내면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지금의 남주동 시장에 해당한다.

청주 장이 서던 곳이어서 ‘장터’라 한 것이다. 이 곳에는 ‘싸전’, ‘자리전’, ‘두태전’, ‘피전’ 등이 몰려 있었다. 1914년에 보십리(甫十里), 서림리(西林理), 장대(場垈)의 각 일부를 합하여 시장정(市場町)이라 하였다가 1947년 남주동에 병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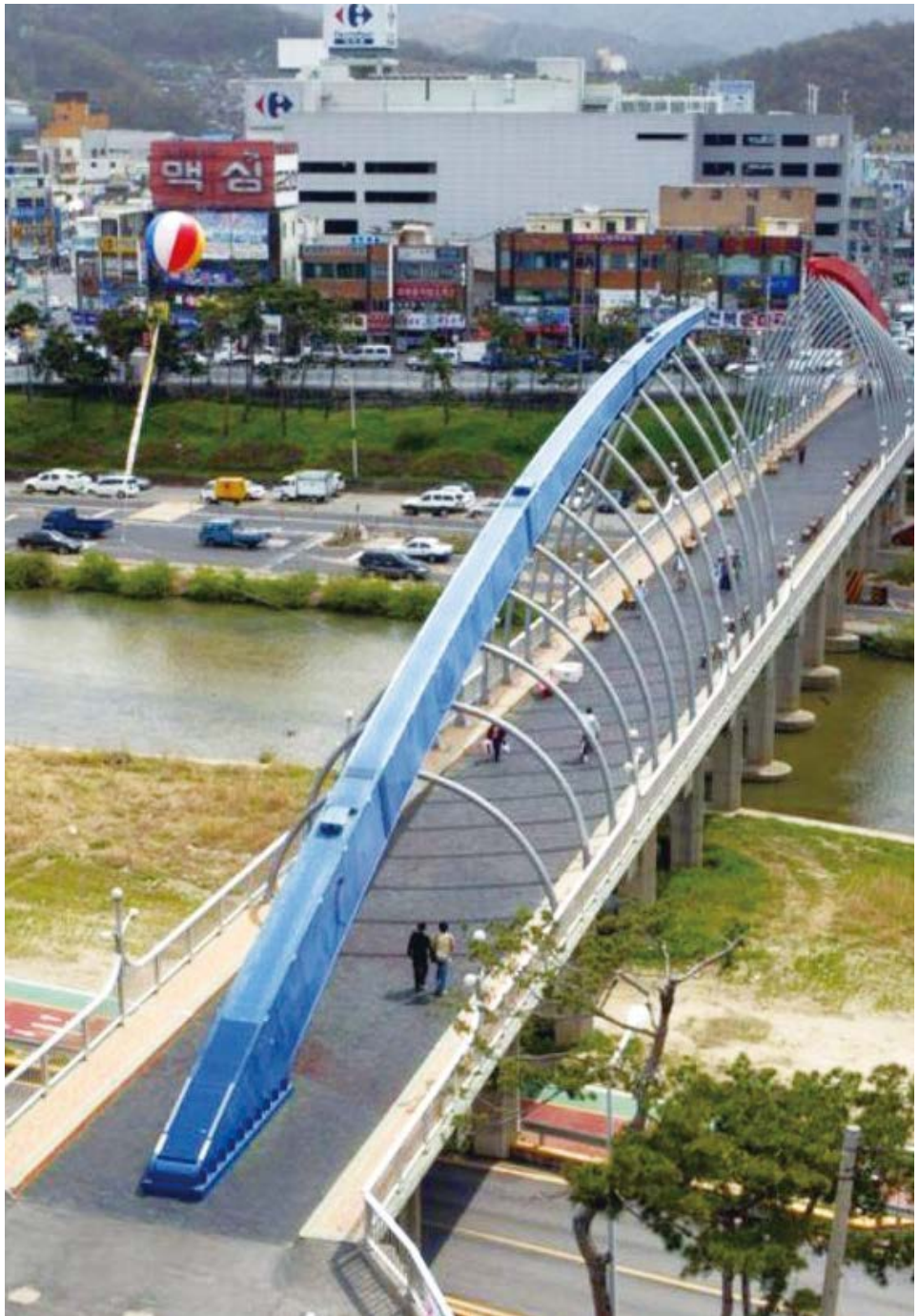
〈1993년 남주동시장의 생활잡화점 모습〉 제작자. 개인 김대중 출처. 김대중



〈남주동 한복거리〉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서문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과 상당구 서문동을 연결하는 다리〉 제작자. 개인 유현덕 출처. 유현덕

[형성]

본래 북주내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청주군 북주내면의 서리(西里) 및 원리(院里) 각 일부를 분할하여 성서정(城西町)이라 하고 청주군 북주내면의 서리를 분할하여 서정(西町)이라 하였다. 1947년 일본식 동명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 둘을 묶어 청주읍성의 '서문'을 따서 서문동이라 명명하였다.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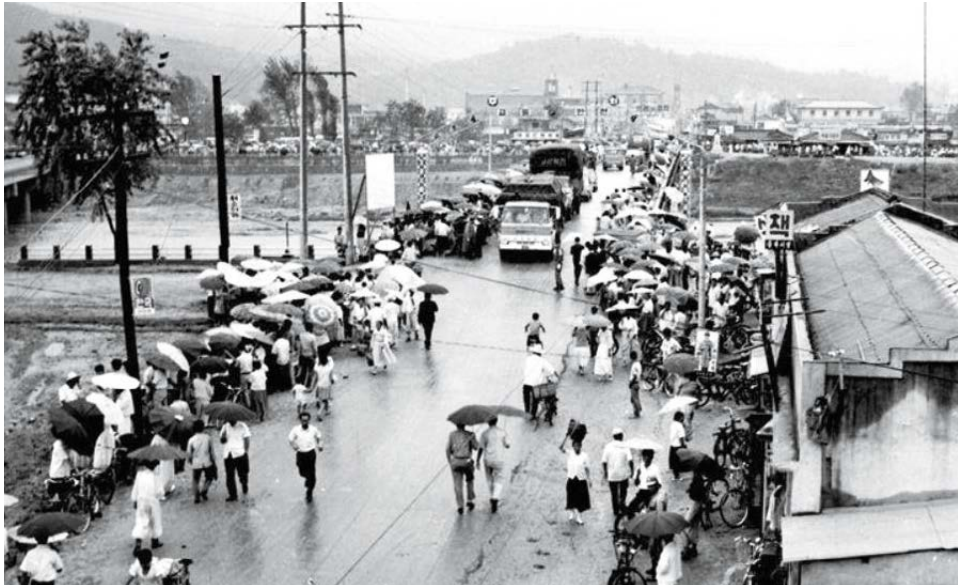
1998년 2월 1일 과소동 통폐합으로 성안동에 편입되었다.



[현황]

청주시의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법정동으로 총 면적은 0.20km²이다. 2011년 3월 31일 현재 458세대 89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남자가 479명이고 여자는 411명이다. 1969년 무심천(無心川) 정비사업으로 하천부지가 시가지로 개발되어 신흥주택가가 형성되었고 서문시장에는 의복, 생필품, 육류, 지물상 등이 집결하게 되었으며 채소전 골목에는 각종 채소와 생선류, 청과류가 길을 가득 메우게 되었다. 이후 계속 상권이 형성되어 현재에는 서문시장과 구 청주합동 주차장 터의 '홈에버'라는 대형매장을 비롯하여 2007년 10월 9일 1,973석 규모로 개장한 '청주CGV'가 있다. 이 외에도 주요 시설 및 기관으로 청주 YMCA, 서문새마을금고, 중앙경로당, 중앙공원 등이 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1960년대의 서문교 인근 모습〉 제공자: 기관 청주시 출처: 청주시



〈1993년 서문교에 설치된 풍물시장 내부 모습〉

□ 서문다리 / 서문교(西門橋) / 청주교(淸州橋)

'서문다리'는 무심천에 품어져 있는 다리 중의 하나이다. 청주읍성(淸州邑城)의 서문 밖에 놓여 있는 다리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문교(西門橋), 청주교(淸州橋)가 놓이기 전까지는 조치원 방향으로 가는 유일한 다리였다. 지금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다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서문철다리 모습〉



〈1967년도 서문철교 모습〉

□ 서문철다리 / 서문철교

'서문철다리'는 무심천 위에 놓여 있던 철교이다. '서문철교'라고도 한다.

1920년 11월 1일에 완공되어 40년 동안 존속하다가 철도 직선화 사업으로 철로가 변경되자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 청주대교(淸州大橋)가 가설되었다.



1

조아라카페

대표 **조성국**



진행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조성국

안녕하세요. 카페 조아라를 운영하는 조성국입니다. 57년생이고요.

진행자

동네에서 어린 시절부터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거리도 많이 바뀌고 옛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죠. 저희가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의 추억을 함께 나누며 동네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추억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나눠주시면 공감하는 주민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될까요?

조성국

그럼요. 많죠. 그 시절 얘기를 다 하자면 10권도 넘게 쓸 수 있지만 우선 60년대를 생각하면 이 골목은 콩나물 만드는 집, 떡집, 장화, 신발 때우는 사람들이 다 여기 골목 안에 쫓 있었어요. 남주동 해장국집 여기는 오송상해였고요. 지금의 한복거리엔 포목상도 많았죠. 이쪽엔 장이 섰으니까 이 주변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농산물도 생기더라고요. 여기엔 어릴 적 기억



도 있는데 지하실을 다 파서 두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사다리로 내려가게 해놓고 위에 지붕만 세워놔었어요. 짝 넓은 데 친구들과 여기서 한참을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 당시엔 놀게 별로 없어서 저희에겐 전천후 놀이터였거든요. 그 부근에선 옛날 도루묵강이라고 도둑놈 잡기 놀이를 하잖아요. 잡아다가 이 기둥에다 다 묶어놓고 그랬었어요. 여기 기둥을 이렇게 얇은 나무 기둥을 심어 세워놔였거든. 그리고 지하실에 들어가서도 놀고 재밌었죠.

진행자

기억나네요. 저도 그렇고 그 시절엔 대부분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조성국

그리고 무심천 쪽 풍경도 많이 바뀌었는데 무심천 옆으로 옛날 말로 수령통, 말하자면 물이 빠져 나가는 통로가 있었어요. 지금 흔히 말하는 수문이죠. 사람들이 드나들 정도로 큰 수문이 있고 옆은 막걸릿집, 장어집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 길이 있는데 조그만 길을 어른들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친구들과 조심스럽게 다녔죠. 그곳에 사는 친구 마당은 수로가 흐르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심천에서 놀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를 이렇게 빼다가 불을 때고 양말 말리고 했어요. 그때는 진짜 물 깨끗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더러워졌죠.



진행자

맞아요. 오염이 좀 됐어요. 그 부근에 우시장도 있고 피전이라고 고기를 잡고 남은 피가 줄줄 흐르곤 했죠.

조성국

초등학교 때부터 여기서 딱지 따먹고 하면 전부 다 화투였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 장터에서 맨 배우는 게 그런 거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일광 하나 여기는 장자 하나씩 들고 다니고 그랬죠. 또 장난꾸러기 친구들과 장날 되면 포장마차 앞에 싹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 사람 다니는 데다가 비 오는 날 구덩이를 싹 파 놓고 살짝 연탄재로 싹 덮어놔요. 발이 푹푹 빠진 걸 보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하루하루 그런 장면이 없는 날이 없었죠.

진행자

옛날에 여기 장터가 그랬어요. 그리고 옆 동네랑 딱지 따먹기로 하면 선수들끼리 딱 모이는 거예요. 몇 시 어디서 만나자.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조성국

자기들도 딱지를 모아 와야 해. 그러면 옛날에는 와이셔츠 깍이 있었고 양복 깍이 있어서 딱지를 100장씩 묶어서 깍 채워 가곤 했죠.

여기 약전골목 이게 학교를 선택하는 경계선이었어요. 전에는 전부 석교 초등학교에 다녔었거든요. 학생이 3,500명이었었어요. 그때 1부 2부로 했으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학생 수가 많았죠.

진행자

3,500명에서 주성초등학교로도 가고 중앙초등학교로도 가고 했죠.



조성국

근데 약전골목이 지금 가구점 골목으로 바뀌었잖아요.바뀐 계기랄까 이런 게 있어요. 장사가 잘 되고 시장이 형성되는데 바뀐 거죠.

자연스럽게 누가 의도적으로 여기는 가구점 골목을 하자 약전골목을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누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 한복거리도 한국에서 무지하게 잘하는 선수들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복 골목이 형성된 거고요.

진행자

그렇죠. 그리고 보면 시대가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변해온 것 같습니다. 거리가 변화해 온 모습을 생생한 말씀으로 함께 들으니, 저도 예전 기억이 떠오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국

저도 간만에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네요. 저도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2

쌍방울 TRY

대표 **김은태**



진행자

안녕하세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은태

안녕하세요. 49년생 김은태입니다.

진행자

고향이 어디세요?

김은태

논산이에요. 77년인가 76년쯤 이곳으로 왔어요.

진행자

오랫동안 여기 계셨던 거네요. 그 당시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은태

친구가 미리 와서 이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고도 나도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면 된다고 하길래 시골에서 소를 그때 당시 33만 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3만 원 떼드리고 30만 원 가지고 이곳에 온 거죠.

그 돈으로 3만 원짜리 자전거 하나 사고 방을 10달에 7만 원 주고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노점부터 장사하다가 6개월하고 나니 이소아과 골목 청원 한약방 옆에 가게가 나는 바람에 그 가게를 얻어서 거기서 2, 3년 했나 몰라. 그렇게 하다가 가게를 사면서 확장했죠.

진행자

그 당시 장사는 어떠셨어요?

김은태

그때는 우스갯소리로 개똥을 갖다 놔도 팔릴 정도였죠. 대농이라고 저기서 월급 탄 돈을 가지고 이 서문시장하고 여기 남주동 골목 이쪽에서 막 물건을 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만 원짜리 수표가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잘 팔리고 대목 한 번 보면 물건이 다 팔려서 없을 정도로

물건이 다 빠져나가고 그 정도로 장사가 잘됐죠.

진행자

그때 그 당시에 이소아과나 약전골목 분위기를 조금 말씀해 주세요.

김은태

그때는 대단했어요. 그때는 자전거를 타고서는 이렇게 못 왔어. 전부 다 자전거를 타고서 오다가 이소아과 골목 딱 들어서면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올 정도고 사람들이 하도 많고 그러니까 소매 치기도 엄청 많아서 주의를 많이 했었어요.

옷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통을 나무로 짜서 자물통 잠그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기억나네요.

진행자

말씀 들어보니 저도 어린 시절 그런 기억이 나네요. 거리에서 오래 사셨던 만큼 전해주시는 말씀



이 생생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네요. 혹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봐도 될까요?

김은태

지금까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비전이랄까 꿈이랄까 그런 것이 늘 마음속에 있어서 고향이 충남 논산인데 틈틈이 거기다가 정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감나무도 한 400부씩 심었고 거기에 카페도 한번 해보고 하는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죠.

진행자

그런 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김은태

지금 수십 년 동안 나무를 심고 전체 한 땅이 한 7천 평 정도 되는 정원인데 나무를 예쁜 거 심고 한해 한해 가꾸며 그 일대를 정원화하고 카페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드는데 마지막 꿈이에요.

진행자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3

태성사

대표 **김기일**



진행자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김기일

안녕하세요. 김기일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청주 남문길에서 언제부터 계셨어요?

김기일

69년도부터 살았습니다.

진행자

69년이요? 한참 오래전인데 그 당시 거리는 어땠나요?

김기일

69년 봄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간선도로가 없었죠. 간선도로가 69년도에 공사를 했을 거예요. 동서로 가는 도로가 난 뒤에 바로 왔네요. 그 도로가 청주시 큰 도로에 있었어요.

여기가 조흥은행하고 국민은행, 청주약국 여기 사거리가 청주성의 읍성 중앙에 중앙이었죠.

진행자

그렇죠

김기일

남북으로 가는 길을 90년도에 개통을 했나? 91년도에 개통했나? 그랬을 거예요.

진행자

그 도로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서남북으로 길을 낼 때 길이 너무 넓다는 의견이 충돌이 났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김기일

말썽이 많았었죠.

진행자

지금 봤을 때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오히려 지금 보면 더 넓어도 좋았지 않았나 싶어요.

김기일

근데 그때는 워낙 차 별로 없을 때라 차가 한 대 지나가려면 먼지만 나고 하루 종일 차 몇 대 안 지나갔어요.

진행자

그 무렵 얘기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태성사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김기일

그때는 건축법이 지금과 달라서 조그마한 것도 지을 수 있었어요.

길이 나고 나니까 삼각형으로 아주 조그맣게 된 점포가 생겼는데 그걸 누가 소개해 줘서 거기서 임성사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시작했죠. 그러고서 얼마 안 돼서 이름을 태성사로 바꿨어요.

진행자

오랫동안 했는데 태성사를 몇 년도에 그러면 바꾸신 거예요?

김기일

그때 그것도 아마 한 칠십몇 년도에 받았는데 기억하기가 어렵네요.



진행자

맨 처음에 사업할 때 참 젊으셨죠?

김기일

젊었죠. 20대에 집을 문화동 쪽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집을 잘 짓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는 은행에서 중견급 직원분이 장기 주택자금 융자로 집을 짓는 거를 소개를 해줬어요. 열심히 하고 잘해서 그런지 돈을 좀 벌었어요.

그리고 나니 서울 직장으로 갈 필요가 없이 잘 됐고 여기 문화동 쪽에다가 집을 6채 7채인가를 한꺼번에 짓게 됐죠, 국민 서민주택이라고 지는데 그걸 20년 장기 융자 집을 짓는 건데 그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청주 아마 1호로 내가 그 집을 지은 걸 것 같아요. 지금같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해서 아주 초창기 작업을 해놓으면 은행 직원이 와서 한번 보고 돈을 주고 얼마 뒤 벽돌을 이렇게 쌓으면 또 와서 보고 얼마 주고 6번인가 7번에 대해서 이제 돈을 통장에 나눠서 줬죠. 그래서 놀러살게 됐는데 이 사업이 매력트 있다고 알려지고 나서 경쟁자들이 생기다 보니 그때부터 내가 잘 안된 거죠. 결혼도 하고 잠시 일을 쉬었는데 다시 하려고 하니 그때만 해도 70년대 80년대



〈출처 :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는 건축업이 지금같이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고 참 노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누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건재상이나 이런 데서 그냥 다 외상으로 갖다 짓고 나중에 돈을 받고 또 돈을 못 받으면 또 떼먹고 반복되다 보니 돈을 벌기가 힘들었어요.

그렇게 건설업자에게 돈을 떼이고 부도가 나서 우여곡절 끝에 가전제품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누가 가전제품을 수리하면 관찮을 것 같다 해서 버스 정류장 근처에 홍가 같은 빈 점포를 얻어 가전제품 수리센터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게 임성사예요.

진행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시다가 지금 태성사 지금 자리로 봤을 때는 거기 지금 간선도로 상당 약국 앞쪽이죠?

김기일

지금 저기 간선도로가 외국 식품 파는 데 그 자리죠



진행자

임성사도 거기서 하다가 태성사로 바꾼 거죠?

김기일

그러면 벌써 한 지금 한 50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4년 정도 이렇게 됐네요.
그때가 아마 70년도 때 70 몇 년도 했을 거예요. 아마

진행자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청주약국 그 사거리 거기도 버스가 다니던 거리잖아요?

김기일

원래 그전에 거기로 다녔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인근이 이제 청주의 핵심 중의 핵심 중심지였죠.

진행자

중심지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유동 인구가 엄청나게 났겠네요.

김기일

많았죠. 지금은 이제 교통이 좋아서 차를 많이 다니지만, 그전에는 차보다는자전거가 많고 유동 인구가 아주 많았어요.

진행자

그래도 이제 그 중심가에서 그런 가전 이걸 운영하셨으니까, 그때는 매출이 괜찮으셨죠?

김기일

그때는 여기 성안길 장사들이 그때는 잘될 때였지요.

진행자

예 그전엔 명칭이 뭐였죠?

김기일

그때 본정통이라고 했어요. 본정통이 일본 말이죠.

진행자

아. 그렇죠

김기일

그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었죠.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 본정통에 있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주 재벌이라고 그래서 굽실 굽실했었어요. 그리고 여관에서 비단 장사들이 많고 옷감 장사들이 이런 분들이 돈 많은 분들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아마.

진행자

가구 골목도 그렇고 한복도 그렇고 그때는 장사가 번영했던 것 같아요.

김기일

근데 그때 가구점 골목은 약초 골목이었었어요.

진행자

지금도 한약방 몇 개 있더라고요.

김기일

오래된 한약방이 있지요. 지금처럼 그때도 시골에서 약초 같은 거 해서 노점상 이렇게 자리 펴놓고 팔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약초를 상점에서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주 동네 이름이 약전골목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포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커졌고 가구점들이 점포가 넓어야 하니까 그쪽으로 하나둘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구점 골목이 또 된 거죠.

진행자

그전에 여기 골목 보니까 청주약국 앞쪽에 보면 방송국이 있었죠. MBC 방송국이 있었는데?

김기일

원래는 나는 잘 모르는데 중앙공원 안에 방송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뒤에 옛날 궁정 다방 했던 자리가 그 건물이 5층인가 6층인가 거기가 MBC문화방송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다니던 직원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 오는데 지나가고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MBC문화방송도.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대신에 이 근처에서는 이제 방송국 하고 또 전파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진행자

그렇죠.

김기일

방송국에 전파사 라디오가 막 나와서 팔리고 그 녹음기 같은 것도 팔리고 이러면서 고치고 가고 그러니까 여기에 라디오 전축 고치는 상점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음향 용품은 별로 안 하고 주방 기구 쪽으로 주로 했죠.

내가 어려서 서울 직장 다닐 때 배워놓은 기술이 조금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일본 말로는 “가다”라고 그래서 지금은 금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금형을 조금 배운 게 있어요.

그것이 주방용품 가전제품 아날로그 제품은 고치는 데 상당한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협회를 만들었는데 이유가 전자제품

을 팔려면 전파사 같은 데는 전부 다 허가증이 경찰서장 명의로 허가증을 갖다 걸어놓고 장사를 해야 했어요. 그때는 그것이 없으면 벌금이 상당했었어요.

가입을 의무적으로 안 하면 단속이 파출소에서 나왔어요. 총장들이 수시로 단속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절로 협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매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청주시하고 충청북도에 있는 가전, 주방 기구를 파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협회로 등록을 시켜서 봄, 가을로 한 번씩 그 협회 회원들을 데리고 생산 공장에 견학을 무료로 가는 거죠. 그러면 생산 공장에서 선물도 하나씩 주고 거기다 조금씩 보태주면 버스만 하나 전세해서 아주 재미있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다들 좋아하고 이러니까 도매상이 금방 커지더라고요.

가전협회를 만들고 전파사 협회도 만들어서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진행자

지금 태성사를 그림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김기일

한 20년 되죠

그만둔 지는 한 15년 된 것 같고요. 2010년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진행자

그만둔 계기는 어떻게 되시죠?

김기일

아들한테 넘겨주기로 해서 그만뒀는데 아들이 그냥 힘들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 거죠. 첫째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작은 애가 나 해보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줬는데 조금 하다가 너무 힘들고 경쟁자도 많고 못 하겠다고 쉬는 거예요.

지금 애들은 쉬운 거만하죠. 우리는 할 때 열심히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개 팔아서 천 원 남을 거 10개 팔아서 1,200원 남으면 10개를 팔거든 장사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하나 팔아서 천 원 남고 10개 팔아서 1만 원 남아야 장사를 하니까 우리하고는 생각하는 게 매우 다르죠. 옛날에 우리 장사할 때는 그냥 조금만 남아도 팔아야 할 가격은 돈이 된다고만 하면 그냥 본전만 아니면 팔았죠

진행자

사업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김기일

보온에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복구를 좀 해줘야 하겠다는 거예요.

서비스센터 직원들을 차까지 해서 아주 먹고 자게끔 해서 자료를 실어서 딱 보내서 그냥 싹 고쳐줬죠.

마이크를 화물차에다 달고 동네만 다니는데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모든 분은 어디 학교에서 수리를 무료로 해줍니다. 그냥 들고나오면 갖다주면 그 사람들은 단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차에 실은 제품만 팔리고 다른 사람들이 제품을 싣고 오면 안 팔리는 거요. 근데 박리다매했기 때문에 이익을 안 보고 돈을 많이 못 벌었죠.

진행자

지금 남문길 번영회 회장님을 하시고 계시죠?

김기일

지금은 번영회 회장은 안 하고 있고 직지 홍보단장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직지지도사라고 이제 대학교에서 직지 학과를 만들어서 공부시키고 지도사 자격증을 줬어요. 인쇄협회에서 전국에 행사하는 데다가 행사장에다가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만 우리 지도사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몇 명이 와서 며칠 좀 해주세요. 그러면 딱 차려놓으면 그냥 가서 설명해 주는 거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그 재미도 있고 관촬더라고요.

하지만 그냥 홍보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한 줄만 가지면 그냥 몇 시간씩 공부할 수 있는 건데 옛날 글씨니까 글씨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뜻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이보다 더 오래된 게 없다. 세계 발전사에 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홍보해야 청주에서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나왔구나. 이렇게 홍보해야 청주를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죠.

진행자

모든 일에 열정을 갖고 하시는 모습이 멋지신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4

대표 **김동현**



진행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동현

안녕하세요. 김동현이라고 해요.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35년인데 옛날에는 5살 되기 전에는 호적이 안 올렸어요. 원 나이는 92살이에요.

진행자

저희가 볼 때도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김동현

별다른 건 없고 매일 냉수마찰만 잘하고 있어요.

진행자

냉수마찰하고 또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동현

비교적 많이 움직인 편이에요.

진행자

제 어릴 적 기억으론 백화 서점 운영을 하셨잖아요.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김동현

처음에는 내 집안 형님이 서울에서 삼성출판사를 운영했어요.거기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편집하는 데 도와주고 있다가 그 당시 청주가 교육 도시로 무척 유명해서 청주에서 서점을 시작했죠.그 당시는 굉장히 살기 힘들던 때라 대부분 교과서도 제대로 사지 못하던 시기였어요.그런데 거기서 돈을 모으게 된 계기가 생기게 된 게 한 50여 년 전에 찬송가 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편 찬송으로 바꾸게 되면서였죠. 제가 충청남북도쪽은 개편 찬송의 공급을 한 거예요. 그쪽에 목숨 걸고 힘쓴 결과 돈을 좀 모으게 되었어요.

진행자

충청남북도에 있는 교회나 학교 이런 데 다 나갔을 테니까 엄청나셨겠네요.

김동현

성경책은 하나 가지면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눠보는데 찬송가는 하나씩 가지고 다녔으니까 숫자가 엄청났죠. 워낙 많이 나갔기 때문에 돈을 다행히 좀 벌게 됐어요.



진행자

이쪽 거리에 대한 옛 기억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청주에서 백화점이라는 명칭으로는 처음 생겼을 때 동강 백화점 흥업백화점 등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쪽에선 동강 백화점이 이제 고 상권의 핵심 점포라고 볼 수 있었잖아요. 백화점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좀 어땠어요?

김동현

대단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잘 됐죠. 그 당시에는 대로라고 해봐야 차도로 좁고 통행량이 적으니까 길을 넓히는 과정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좀 더 확장했더라면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다녔을지도 몰라요.

진행자

그 당시 분위기에 대해 더 얘기해 보면 이 부근에 선술집, 막걸릿집도 많았죠?

김동현

골목골목에 다 있었죠. 금강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그런 골목에 많이 있었어요. 과자 도매상, 부라더미싱, 사진관, 다방도 많았

잘아요.

진행자

커피숍도 많이 보이고 그랬죠. 여기 옆에 있는 궁전 다방도 꽤 오래됐고 다방이나 빵집, 식당이 있었고 의류점도 많았어요. 그때는 가구점 골목 가기 전에 전체가 다 약전 골목이었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는 예전 같은 활기는 많이 사라졌고 거리가 활기를 잃었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김동현

육거리는 육거리 시장에 번영회가 있어서 재래시장 촉진법이라고 그것을 근거로 지원을 정말 많이 해 주었거든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소외된 상권이 제대로 되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하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많은 상점가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몇 건물 주인이면서 젊은 친구들이 운영하는 몇몇 상점이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막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하고 이게 잘 돼야 해요. 그럼 자기 일이란 말이죠. 자기 일이기 때문에 동기만 부여하면 한다고 해요.

진행자

이런 좋은 말씀은 기회가 된다면 사장님께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강의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

저도 적극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행자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5

전금당

대표 **조웅환**



진행자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웅환

안녕하세요. 조웅환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지금 전금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하신 거죠?



조웅환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40여 년이 넘었네요. 81년도부터 했으니깐요.

진행자

처음 하시던 시절엔 이 거리 분위기는 어땠나요?

조웅환

그 당시에는 상권이 일자 형태로 형성되어 있어서 모든 메이커와 상점들이 밀집 형태로 전국에서도 사업이 잘되는 지역으로 손꼽히는 본정통길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성안길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요.

거리와 골목골목에는 많은 사람이 왕래가 잦았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당연히 정치 1번지라고도 했죠. 패션과 먹거리 문화가 왕성했지요.

지금도 생각해 보니 극장과 다방, 제과, 당구장, 양장, 양복점, 귀금속점, 잡화점, 은행, 약국,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죠.

그중에도 제과점인 청주베이커리와 장글제과에서는 음악과 함께 빵, 음료수를 먹으며 즐기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 당시에는 아이스케키도 감천당과 청주베이커리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했어요.

또한 중심 상권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여 데모도 많이 일어났어요. 최루탄 가스가 가게에까지 들어오면 참으로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장사가 잘되었어요. 지금은 상권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시내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바람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거리 분위기도 바뀌어 가고 있듯이 다시 상권이 옛날같이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이 다시 찾고 싶은 거리로 거듭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네 저도 그러길 기원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네와 함께한 주민들 [조웅환]



6

유성사

대표 유원형

제10호 허가증		
상호표는 서장명	유성사	지정하는 표준화물종
영업장소	전주시 남동로 150-3	
성명	유원형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주시 서면동 156-13	
교통정리제 제2조(제3조) 제1항 및 특별시정령 제4조(제5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교통상(서정주) 형상을 허가합니다.		
1981년 3월 26일		
청주경찰서장 인		



진행자

안녕하세요? 우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유원형

안녕하세요. 유원형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3년생이고요.

진행자

그러면 여든이 되셨는데 고향은 어디세요?



文 靖 祠 : 忠北 槐山郡 沼壽面 夢村里

西峒公 不遷之位 位牌와 影幀(二本으로 忠勲府賜本과 耆老所賜本) 및 公의 長孫 晉川君 碩) 不遷之位 位牌와 影幀(忠勲府賜本)을 奉安한 不祧廟인데, 今番 政府支援으로 新築도

유원형

우리 조상들께서는 과산 소수면에 터를 잡으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동수 총리 직업이 있었대요. 임진왜란 무렵에 삼정승이셨고 저는 충주 주덕읍에서 태어났어요.

진행자

거기서 태어나시고 그러면 거기서 초등학교부터 쪽 다니셨나요?

유원형

옛날에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몸이 이라서 다니다 말았어요.

진행자

그러면 어려서 소아마비가 있으셨던 건가요?

유원형

어려서가 아니라 6, 7살 무렵인데, 옛날 돌매 방아 아시나요? 돌매 방아 담이 높아요.오르락내리락하며 놀았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쪽혈어져 내려서 다친 거죠.

진행자

성장기에 다치셔서 초등학교에 다니다 다 마치 못하셨군요.

유원형

초등학교 다니다 말았죠

진행자

지금 하시는 일이 지금 시계 수리잖아요.그거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죠?

유원형



얘기를 하자면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내가 고향에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기술을 배워서 거기서 한 5년 하다 내려온 거예요.

진행자

기술을 배우려면 학원 같은 데서 배워야 하지 않았나요?

유원형

서울시계 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서울 남대문시장 안에 한미 시계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배워서 한 5년 하다가 내려온 거죠.



진행자

그러면 몇 살에 상경하신 거죠?

유원형

그때가 20살인가 22살인가 그 정도 돼요. 그래 상경을 해서 우리 사촌동이가 처음에는 다방을 소개해 줘서 다방 주방에 있었어요. 주방에 있으면서 돈을 벌어서 기술을 배우게 된 거죠. 여기서 내려와서 이 허가를 85년도에 받은 거예요.

진행자

그때부터 유성사를 하게 되신 거군요

유원형

예 그렇죠.

진행자

그때부터 유성사를 개업해서 여기서 이제 정착하신 거네요? 그때는 이 골목이 어땠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유원형

그때는 좋았죠. 시골 사람들이 그때는 많이 왔었기 때문에 이 골목에 장이 쓸 정도였으니까요. 여기가 사람이 어깨가 부쳐가도 못 당길 정도였어요.

진행자

제가 알기로는 이쪽 남주동에 도매시장이 아주 크게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시나요?

유원형

그렇죠. 여기 남주동이 이 밑에 도매시장, 생선 집



하장이 있다가 운천동으로 간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진행자

생선 집하장 앞쪽이 그때만 하더라도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좀 어땠어요?

유원형

그때 당시 한 달에 6천 원씩 주고 했어요.

진행자

보증금 같은 건 없었고 그때 당시에 6천 원이었군요.

장사가 어땠어요?

유원형

그때는 이 사람들이 많이 유동 인구가 많았으니까추석, 설, 명절에 수선할 시계가 저렇게 많이 쌓였었어요.

진행자

이소아과 골목 같은 데에 장이 있었고 장 설 때마다 그때는 더 바빠졌네요?

유원형

그렇죠. 자꾸 장날 손님들이 왔다 하면 그다음 장날엔 꼭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많았어요.

진행자

지금 오시는 분이 그러면은 지금 85년도에 오픈하셨으면 지금 벌써 40년 가까이 됐네요?

참석자3

80년도 38년이네요.

진행자

그 당시에 손님도 많았고 장사가 잘돼서 돈도 많이 버셨겠어요?

유원형

많았는데 내가 욕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도 불쌍한 분 오면 그냥 천 원 받고도 해 주고 뭐 2천 원 받고도 해 주고 그래요. 옛날에 많이 받았으면 돈 벌었죠 근데 내가 욕심이 없어서 이런 불쌍한 사람 보면 동정에 가서 많이 못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흘을 고쳤어도 시계 안 가면 돈 안 받아요.

진행자

옛날보다 손님이 좀 줄어든 게 느껴지시나요?

유원형

줄은 정도가 아니지 전혀 없어요.

진행자

지금은 핸드폰에 다 기능이 있으니까, 시계를 많이 차지 않아서 더 그럴 것 같아요.



유원형

지금은 돈 벌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 유지하려고 활동하는 거죠.

진행자

그렇군요. 앞으로 무슨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유원형

바람이라는 건 특별한 건 없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 죽는 거예요.그 외엔 바람이라는 건 없어요.

진행자

그게 큰 복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장님은 능이 그러실 것 같아요.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한복갤러리

대표 **김문정**

한복진흥협회 회장



진행자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문정

저는 충북 한복진흥협회 회장 김문정이라고 해요.

협회를 창립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지금 한참 열심히 하고 있고요

“김진숙 한복”은 1987년에 시작을 했어요, 이제 36년 정도 됐네요.

진행자

제가 알기로도 그전에 이제 시어머니 때부터 쪽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좀 조금 들을 수 있을 까요?

김문정

어머님.. 어머님이 거의 90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한 60년 이상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뒤에 제일 큰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한 20년 하셨고 그다음부터 제가 36년 정도 운영해서,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한복을 하기 전에는 다른 일을 하신 건가요?

처음부터 한복으로 시작하신 게 아니잖아요.

김문정

그렇죠

저희 남편이 경남에서 삼성중공업 다니시다가 갑자기 그만두시는 바람에 청주에 갑자기 내려오게 돼서 형님이 하시던 걸 받아서 하게 됐어요.

진행자

그러면 청주 한복거리에서 처음부터 한복을 하신 거네요

87년도 정도부터 여기서부터 하셨으면 그때는 정말 좋았잖아요?

그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김문정

그때는 다 맞춥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여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맞춥이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환갑 그다음에 칠순 팔순도 하시는 분도 많고 예식을 해도 온 가족, 친척들까지 다 맞추는 경우가 있었는데 맞춤 한복은 모두 수작업이다 보니 그 당시에는 일손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바쁘고 힘들었지만 가장 행복하고 축하받아야 경사에 우리 전통한복을 입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참 보람되고 기뻐어요.

비록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폐백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한복을 안 입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지만



더욱 힘내서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엔 한복 거리 점주분들과 한복의 세계화를 위해서 일본으로 홍보를 나갔는데 참 힘들었지만 정말 보람되었던 일 같아요.

일본거리를 한복을 입고 거니는데 일본 시민분들의 호응이 의외로 좋았어요.

한복이 긴 세월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인 우리 전통 미(美)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기뻐요.

진행자

말씀 들어보니 단순히 한복을 판매하는 개인이 아닌 전통을 알리고 이어가려는 사명감이 큰 것 같아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복 패션쇼〉

김문정

충북한복진흥협회가 창립되고 한복을 알리는 방법으로 한복 축제와 패션쇼도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많은 분이 참여해서 한복도 체험하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복에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

김진숙한복

대표 **김진숙**



진행자

안녕하세요. 먼저 개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진숙

안녕하세요. 지금은 일선에선 물러났지만, 김진숙 한복을 운영했던 김진숙입니다

진행자

언제 운영하셨죠 ?

김진숙

이 자리엔 오래전부터 있었죠. 제일고전의상실이라고 77년부터 친정어머니가 시작하셨고 79년부터는 제일주단 김진숙 한복으로 상호를 바꿔서 현재까지 왔네요.

진행자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도 한복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김진숙

그전에 또 할머니가 하셨었죠. 이름도 없이 했는데 말하자면 샅바느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행자

그때는 한복 가게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죠?

김진숙

그 당시 원단은 대부분 서울 광장시장에서 많이 사 왔죠.그리고 옛날에 이제 “텐바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직접 여기 왔었어요. 물건을 들고원단이 오면은 그 원단을 가지고 직접 바느질하는 거죠 그런데 고전의상실이라고 붙었을 때는 원단까지 취급한 거예요.그 외에는 그냥 바느질이죠. 그렇게 샅바느질하는 데는 원단을 취급하지 않았었어요.그냥 바느질만 하는 거지.

진행자

그러니까 고정 의상실을 하면 원단을 쓰는거죠?

김진숙

지금으로 보면 맞춤을 한 거였어요.여기가 이 골목에 주단 집이 아주 많았던 거 아시나요?이 근처가 한복거리였고 다 맞춤 집이었어요.요즘은 대여하는 매장으로 많이 변했죠



진행자

이유가 뭘까요?

김진숙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한복을 자기네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요즘은 조선족들이 한복을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이 입어요.

물론 고급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고 있지만 좀 저렴한 저가 제품들은 중국에서 막 만들어 오죠. 계량식으로 해놓으면 양장이 조금 가미가 돼서 55, 66, 77, 88 이렇게 해도 누구나 다 잘 맞게끔 되니까 전통보다는 대여 쪽이 많아지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면 전통으로 하면 이게 아무나 사이즈가 잘 안 맞으니까요.

진행자

지금 한복을 옛날에는 정말 많이 입었잖아요. 평상시는 안 입지만 명절이라든가 잔치라든가 아니면 결혼식 이럴 때 한복을 무조건 맞추고..

김진숙

그전에도 평상시에는 안 입는다고 하더라도 명절이나 잔치 때는 꼭 입었죠.

진행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김진숙

첫째로 신랑 신부들이 꼭 맞춤이나 대여해야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2019년도에 결혼할 때 보니까 예식장에서 폐백을 못 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폐백을 하면은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고 그 폐백실을 빌려주는 것만으로 해서는 별로 수익이 없나 봐요.

우리 남편하고 둘이 가서 얘기해도 못 하게 해요. 그러다 보면 폐백을 안 하는데 한복도 대여조차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신랑 신부들이 그냥 예식 끝나고서는 양장으로 갈아입는다든지 간단하게 하고서는 인사만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식장의 횡포라고 볼 수도 있죠.

진행자

그것도 이제 한 이제 요인이죠. 옛날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엄마들이 한복을 사실은 좀 평상시에도 입었잖아요. 다시 한복을 대중화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김진숙

모든 게 변하니까 시대가 변하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번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길거리에 기모노를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무슨 행사에 있어서 입은 것일 수도 있지만 길거리에서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는 한복 입은 사람들 그렇게 눈에 띄질 않잖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진행자

생활 한복이 한복 대중화에 이바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기존에 있는 전통 한복을 하시는 분으로서는 이 생활 한복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진숙

생활 한복 한다는 거는 양장이거든요. 양장이 많이 가미돼 있어요. 근데 기술자가 없어요. 전통하던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기성복으로 대량 생산돼서 나오는 것 중에서 할 수밖에 없죠. 이런 기성복들은 중국제품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양장이 가미된 생활 한복을 만드는 기술자들이 많지 않아요. 참 아쉽죠

진행자

말씀을 들어보니 생활 한복을 만드는 분 중에 전통 한복을 잘 알고 한국의 미를 살릴 수 있는 기술자들이 많이 없는 것도 한복 산업이 대중화되기 어려운 점에 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진숙

근데 20대가 한복 산업에 들어온다면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로 또 관심을 수도 있죠. 우리 한복 할 때도 이거 사양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70년대에도 사양산업이라고 한복을 누가 입느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20대가 들어와서 한다면 아마 젊은 층이 하면 몰릴 거예요.우리가 벌써 70 가까워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대들의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방향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봐요.



진행자

근데 지금 생활 한복을 보고 전통 한복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진숙

안 좋거나 말거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그렇게라도 입어주는 것만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저 한복도 아닌 저런 걸 입느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근데 옛날에 여자들 쫓바지 입고 다니면 보기 싫었는데 요샌 다 통바지 입잖아요?이게 다 모든 유행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한복이라고 해서 이상하기는 해도 그거라도 입어주고 즐기면 괜찮다고 봐요.그래서 이렇게 한복을 입었다.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한복을 아기들한테 입혀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한테 입었을 때 예쁘다 소리를 들으면 평생 간직을 해요.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복이 나에게 참 잘 어울린다. 생각하고 한복을 또 입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한복을 치수별로 장만해 놓고 명절이나 행사 때 한복을 입을 기회를 준다면 한복이 대중화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복협회가 만들어지고 일반 대중한테 한복을 알리는 방법으로 패션쇼를 진행했는데 패션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숙

한복을 알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단독으로 개최하기보다는 야행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와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행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9

윤희한복

대표 **이옥자**

물레

대표 **박명희**



진행자

안녕하세요. 한복거리의 터줏대감이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명희

안녕하세요. 물레 대표 박명희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 벌써 80 가까이 됐네요.

이옥자

안녕하세요.
윤희한복을 하고 있는 이옥자입니다.

진행자

윤희 한복은 따님 이름인가요?

이옥자

네. 어려서부터 우리 딸이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자꾸 불러줘야 좋다고 해서 상호를 윤희 한복으로 한 거예요.



바느질할 때부터 그냥 간판을 윤희한복으로 걸은 거죠.

진행자

윤희한복으로 한 지 그러면 꽤 되셨겠네요?

이옥자

제가 25살 때부터 윤희한복 시작했을 때제일교회 앞에서 6년을 하다가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나온 거죠

진행자

따님 나이하고 일단 같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건강하게 지내시죠?



이옥자

다행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진행자

한복 얘기를 해 볼까요? 한복의 역사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한복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박명희

6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부터 했으니까 65년부터네요.

진행자

그 당시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박명희

그때는 옷감이 44인치짜리라고 해서 폭이 넓었어요 한 필에 20벌씩 나오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그게 불티나게 나갔어요. 재밌었죠 옛날에는 잔치 한번 하면 식구들이 다 입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한복 맞춤만 잘 나가도 괜찮은데 지금은 한복 대여 매장이 생기자 보니까 분위기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전통 한복에서 복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진행자

지금 전통 한복을 답습하며 전통을 지키는 게 나을지 아니면 삼국시대에서 고려 이렇게 넘어오듯이 한복을 현대에 맞는 한복으로 개량해서 전통과는 거리가 멀지만, 대중들이 입게 편하게 만들어서 한복의 명맥을 이어가는 게 나은지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명희

먼저 미적 감각이 어느 정도 인정이 돼야지 전통도 유지되는 거죠. 전통만을 따지다가 너무 태곳적 걸 고집해서 손님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그냥 사멸되는 거잖아요.그러니까 현대에 입각한 전통도 필요한 거죠

이옥자

우리의 한복이 부류가 있잖아요. 상위층 중위층 하위층이 있어요.상위층에서는 치마가 길고 속도 다 갇혀 있는 형태이고 또 중위층은 그냥 보통으로 날씬하게 입는 형태죠 하위층은 전체적으로 짧고 몸빠 형태로 대량으로 제작이 가능한 의복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생활하기 편리한 생활 한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박명희

전통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옥자

어려서부터 우리가 보고 자란 게 엄마들이 모시 적삼을 입고 검은 몸뻐 바지에 허리 치마를 입고 그렇게 생활했잖아요. 엄마들이 무슨 결혼식이나 무슨 잔치다 하면은 좀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엄마들이 갔어요. 아버지는 주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제사 지내려면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대 그러니까 한 60대까지는 한복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고 의무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의무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예식장에서도 그냥 원피스 입고서 그냥 예식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렇게 한복을 잘 이쁘고 좋다는 거는 알아도 우리가 안 입어주니까 젊은 애들 안 입는 거지 누구의 탓도 할 거 없어요. 우리의 탓이지.

진행자

한복 문화의 거리 상인분들께서 주체가 되어서 패션쇼 많이 개최해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패션쇼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옥자

지금 패션쇼가 일반 대중적인 옷들은 특징이 없어요. 그런 패션쇼를 하지 말고 시대 별로 안 보이는 옷, 숨어 있는 옷을 찾아서 우리의 전통 흐름이 이렇게 흘러왔다는 그런 명분을 보여줘야지 그게 진정한 패션쇼가 아닐까요?

제작비, 운영, 고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더 나아가서 보관,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런 거를 잘 연구해야겠죠. 이런 옷이 금방 되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거예요. 현대와 과거, 이게 어우러졌을 때 미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진행자

한복을 다시 옛날처럼 평상복으로 입는 그것까지는 힘들겠지만, 한복을 특별한 날이라도 찾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이옥자

한복을 입히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 유치원 애들부터 어떻게 해서 한복의 인식을 심어줄 것인가를 그거를 생각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려면 우선 전시 공간이 많아야 해요. 거기에서 한두 벌은 전통을 지키고 옛날 고증된 옷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인 거죠. 입히지는 못해도 고증된 옷을 전시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전시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옷을 볼 수가 없죠그게 안타까워요.

진행자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어려서부터 많이 보고 있고 그런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옥자

그럼요. 지금 옷고름이고 댕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아무도 몰라서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고름 매는 법 댕넘 매는 법 한복 입는 법을 배워야 해요.그걸 배우지 않고서는 한복이 무너져요.

박명희

유치원에서 어버이날이라든가 명절 때 그나마 한복을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그래서 그런 데서 애들이 입어보기는 하는데 굉장히 좋아하죠.그나마 그게 개들한테는 큰 체험일 거예요. 그 외에는 한복을 볼 일이 없을 텐데 여기 율희 한복에서 얘기하는 전시라는 건 궁중 전통 복식을 어디 상설 공관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끔 해서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안내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자랑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옥자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의복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이 청주에는 없어요. 한복을 돌복으로 입잖아요? 색동옷을 그때부터 입는 거를 계속 보여줘야 해요.

때에 맞게, 성년식 때는 어느 옷을 입어야 하고 결혼식 때는 어느 옷을 입어야 하고 회갑 때가 되면 어느 옷을 입어야 하고 이렇게 상황별, 나이별로 다 정리를 해서 자꾸 애들을 머리에다 심어줘야 해요.

진행자

좋은 말씀이네요. 화제를 바꿔서 19살부터 바느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이옥자

많죠, 밤새도록 일감이 하도 많아서 밤을 새워서 일하고 아침에 들고 댄 적도 있고 택시 타고 간 적도 있고 그 시골길 행사장, 방방곡곡으로 가는 거죠.

진행자

일하는 시간이 참 길었겠네요?

박명희

근무 시간이 없어요. 밤새워서 그냥 눈 뜨면 하고 눈 뜨면 하고

이옥자

그때는 한창 바쁠 때는 많이 자 봐야 자는 시간이 4시간이에요.

진행자

주로 바쁜 시기가 언제죠?

이옥자

추석 새고 2월까지 바쁘죠. 2월까지 추석 명절 새고 나면 회갑, 결혼이 쭉 이어졌죠. 쭉 이어져서 3월이 되면 이제 일터가 생기니까 시골에서는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거죠. 부처님 오신 날

이 지나면 한가해져요. 농번기 때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야 한가해졌어요.이 시절로 봤을 때는 여름에는 모시옷을 입고 또 수의도 많이 하셨죠지금도 수의는 하고 있어요.

진행자

수의를 보통 잘 접할 기회가 없는데 수의에 관한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옥자

얼마 전에도 수의를 했는데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서 해놨죠.아직도 살아계세요. 건강하게

박명희

이 집 수의는 그냥 일반 수위가 아니라 궁중 복식으로 해달라면 궁중복식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하고 다음 걸로 해달라면 그렇게도 하고 하니까



이옥자

격에 맞춰서 해드리죠.

진행자

수익도 재료가 다양하지 않아요?

박명희

다양하죠. 명주, 인견, 모시 등

진행자

이 한복의 폭은 정말로 엄청 넓죠.

이옥자

2천 년 역사가 있는 건데 엄청날 수밖에 없죠.

진행자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복을 한 자리에 전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안동

정주읍성은편



2022년
한복협회 창립













2023년 한복패션쇼



















오래된 거리, 새로운 추억 -청주





남문 주단길을 거닐다

초 판 1쇄 발행 2023년 12월 22일

주 최 청주시청
CHONGJU CITY

주 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CH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기획 지역문화재생사회적협동조합

진행 박종명, 유성현, 조은정

사진 여정문

편집 집 이태연

디자인 정지성

펴낸 곳 을지출판인쇄사

있는 곳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36번길 105 청주시웨딩허브센터

남문 후안길을 거닐다

주최 **청주시**
CHEONGJU
CITY 

주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CHEONGJU CULTURAL INDUSTRY
PROMOTION FOUNDATION

기획 지역문화재생사회적협동조합

이 책은 2023 청주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지원 받아 발간되었습니다.